

POD 출판 기획서

서른, 부모님과 남프랑스
: 함께 걷는 속도

유월 정주연

기획제안서

분류: 국내도서 > 여행 > 여행에세이

1. 제목 제안 (가제)

1안 《서른, 부모님과 남프랑스》 부제 : 함께 걷는 속도

2안 《부모님과 남프랑스》 부제 : 서른을 앞두고 함께한 14일

2. 기획 의도

《부모님과 남프랑스》는 런던에서 혼자 지내던 딸이 한국에서 온 부모님과 만나 남프랑스를 함께 여행한 14일의 기록이다.

이 책은 남프랑스 여행 정보를 소개하는 여행서가 아니다.

성인이 된 딸과 부모가 함께 여행자가 되었을 때 생기는 작은 변화와 관계를 기록한 여행 드로잉 에세이다.

- 핵심 메시지

메인 메시지 : 혼자 떠난 여행은 나를 넓혀주었고,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은 나를 다시 가족 안으로 데려다주었다.

서브 메시지 : 세 사람이 각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의 여행을 만들었다.

3. 대상 독자층

핵심 독자층

- 부모님과의 여행을 미루고 있는 20~40대
-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
- 여행 에세이와 브런치 감성의 글을 좋아하는 독자

확대 독자층

- 독립출판 및 드로잉 에세이 독자
- 부모와 자녀 관계를 주제로 한 에세이를 좋아하는 독자
- 유럽 여행과 남프랑스 여행에 관심 있는 독자
-

4. 책 소개

서른을 앞두고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혼자 지낸 지 10주쯤 되었을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남프랑스로 오기로 했다. 마르세유 공항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카시스, 아를, 아비뇽, 베르동 협곡, 니스를 함께 여행했다.

아빠는 숙소와 비행기를 예약했다. 엄마는 가고 싶은 여행지를 찾았다. 나는 식당을 고르고 길을 안내했다.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기억했다.

엄마는 풍경을 찍고, 아빠는 우리를 찍고, 나는 골목과 사람들을 기록했다.

이 책은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보다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다.

5. 세부 목차

프롤로그

여행의 기록

1장 다시 만난 가족

Marseille · Cassis

- 부모님을 기다리며
- 마르세유 공항에서의 재회
- 첫 바다

2장 바다가 보이는 식탁

Cassis · Marseille

- 같은 성당
- 도넛 하나

3장 화가들의 도시

Aix-en-Provence · Arles

- 세 사람의 시선
- 고흐보다 우리

4장 서로 다른 여행자들

Les Baux-de-Provence · Avignon · Châteauneuf-du-Pape

- 빛의 채석장
- 교황의 도시
- 와인 마을의 오후

5장 가족이라는 팀

Gordes · Moustiers-Sainte-Marie · Verdon

- 절벽 마을
- 가장 많이 웃은 날

6장 지중해를 따라

Cannes · Antibes · Saint-Paul-de-Vence · Menton · Monaco

- 파란 카펫
- 골목의 오후
- 샤갈의 마을
- 레몬빛 바다

7장 여행의 끝에서

Nice · Villefranche-sur-Mer

- 로스차일드의 정원
- 마지막 저녁
- 다시 각자의 길

에필로그

남프랑스의 풍경보다 오래 남은 것

6. 차별점

1) 여행 정보보다 관계를 기록하는 여행 에세이

관광지 소개보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중심에 둔다.

2) 미술치료사의 시선

미술치료사인 저자가 사람과 관계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기록한다.

3) 드로잉 기반 여행 기록

여행 후 1년이 지난 뒤 기억과 사진을 바탕으로 드로잉을 제작하여 글과 함께 수록한다.

4) 가족 여행이라는 보편적 경험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가족 여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7. 작가 소개

유월

동양화를 전공하고 미술치료사가 되었다. 학교, 복지관, 병원에서 그림으로 사람을 만나왔다. 서른을 앞두고 런던에서 106일을 살았고, 부모님과는 남프랑스를 14일 동안 걸었다. 사람과 여행을 드로잉과 글로 기록한다.

브랜드 슬로건

그림으로 마음을 보고, 여행으로 삶을 기록한다.

8. 출간 정보

판형 : A5 (148×210mm)

분량 : 72~96쪽

구성 : 글 60% · 드로잉 40%

드로잉 약 20컷 수록

출판 방식 : POD 독립출판 (교보문고)

연계 콘텐츠 : 브런치북 《어학연수라고 했지만》 특별편

9. 작가의 말

남프랑스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풍경이 아니었다.

함께 걸던 속도. 메뉴를 고르던 시간. 숙소 주방에서 먹었던 아침.

그리고 같은 바다를 바라보던 저녁.

이 책은 그런 장면들에 대한 기록이다.

10. 머리말 - 부모님과 여행자가 된다는 것

부모님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주말을 끼고 다녀오는 짧은 여행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계획해 둔 일정표를 따라가는 여행도 아니었다.

우리는 14일 동안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길을 잃었다. 여행을 하다 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풍경을 찍고, 아빠는 우리를 찍고, 나는 음식을 찍는다는 것. 같은 곳을 여행했는데도 세 사람의 카메라에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난 뒤, 하루를 다섯 글자로 기록해 보기로 했다. 이 책의 각 장 앞에는 그 날의 다섯 글자가 실려 있다. 어쩌면 이 책은 남프랑스 여행기가 아니라,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한 14일의 기록인지도 모르겠다.

11. 프롤로그 - 여행의 기록

이 책은 여행 가이드가 아니다.

런던에서 10주를 혼자 살던 딸이, 한국에서 날아온 부모님을 마르세유 공항에서 만나 함께 보낸 14일의 기록이다.

같은 바다를 보았다. 같은 식탁에 앉았다.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난 뒤 이야기를 해보니 우리는 서로 다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는 풍경을 기억했고, 아빠는 함께 찍은 사진을 기억했고, 나는 골목과 식당을 기억했다. 이 책에는 그런 작은 장면들이 담겨 있다. 카시스 부두 앞에서 먹은 첫 점심, 절벽 위 성당에서의 미사, 베르동 협곡에서의 페달보트, 니스 바다 앞 마지막 저녁.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다.

여행이 끝난 뒤 1년이 지났다. 사진을 꺼내 다시 그림을 그렸다. 풍경을 그리려 했는데 사람을 먼저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기록해 두기로 했다. 남프랑스의 풍경보다 오래 남은 것들을.

12. 1장 - 다시 만난 가족(발췌)

- 부모님을 기다리며
Day 0. 파리, 마르세유

여행 기록 (아빠 · 엄마 · 나)
- 짜릿한 환승 - 파리로 가자 - 마지막 수업

런던에서 혼자 지낸 지 10주째 되던 주였다. 마지막 수업이 끝났다. 졸업사진을 받았다. 친구들과 펍에서 애플사이다를 마셨다. 홈스테이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날, 10주 동안 매일 열고 닫던 문이었다는 걸 처음 실감했다. 그 주에 부모님은 한국에서 출발했다. 어떤 표정으로 공항에 갔을지는 몰랐다. 나는 런던에 있었으니까.

토요일 새벽 3시 30분.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조용했다. 히드로 공항에서 카페 네로 빵을 하나 샀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비행기는 7시 5분에 출발했다. 마르세유까지는 두 시간. 10주 동안 혼자였던 여행이 조금 있으면 세 사람의 여행이 될 예정이었다.